

# 삼척·석포지방 민가의 변화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Process of Variety about the Local Houses in the Samchok and Suckpo District

임 상 규\*  
Rim, Sangkyu

### Abstract

The structure and space construction of local houses and its form of shape we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 of locality and times. Each area makes an distinctive culture by spreading the developed culture to an undeveloped area.

Frequent interchange were formed between Samcheok and Bonghwa district for a long time ago. But the change of life zone by progressive traffic makes it to a strange area.

Accordingly this study clarify the changed shape and form of local houses by selecting and put it on record an scattered along the road of old times.

키워드 : 민가변화

###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民家の 構造와 空間構成 및 造形形式은 地域性과 時間性의 影響으로 發達한 地域의 文化가 周邊의 미개지역으로 波及되어 각각의 特色있는 文化圈을 形成하여 그에 적합한 建築의 形態를 創出한다.

우리나라 民家の 形態는 地域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문화권별 地形을 境界로 하여 民家の 類型이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형식이기도 하다.

民家の 研究는 일반적으로 文化圈을 形成하는 人文社會的 影響과, 地域氣候條件에 따른 自然

環境에 의한 影響으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嶺東地方 民家は 함경도지방에 구들구성의 정주간이 있는 주거형식인 田字집과, 경상도지방에 마루 있는 홑집의 주거형식이 서로 절충 혼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태백산간지방에는 영서의 班家型 주거와 영동의 田字집의 影響으로 두령 집이라는 傳統住居가 환경적인 여러 요인을 극복하고 특색 있는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民家が 周邊地域 주거문화의 影響과 自然環境의 여러 要因들에 의하여 漸進적으로 多樣하게 變化됨을 알 수 있다.

江原嶺東地方은 [그림 1]과 같이 지형적인 요인에 의하여 마을마다 민가의 모양과 평면형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북부지방의 구들로 구성된 田字집이 南下하면서 기후적인 요인에 의하여 변화되었는

\* 삼척대학교 건축설계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2000학년도 자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지, 아니면 南部地方의 혼집이 北上하면서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모습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삼척지방에는 北部地方의 구들구성의 田字집이 南下하고 南部地方의 마루 있는 혼집이 北上하며 嶺西地方 집집의 影響으로 住居文化의 接觸變容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한 (陞地方을 中心으로 집축변용 과정에 관한 가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嶺東地方 東西間과 南北間의 民家形態의 民家史 研究의 基礎 資料로 提示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調査時期는 [표 1]과 같으며 조사방법은 建物の 方位, 본체와 부속채 關係 및 平面構成을 採録하고 본체의 立面에 관하여 整理하였다.

표 1. 調査地域 및 時期

地 域	事 前 踏 査	採 録 踏 査
店 里	1994年 5月 1日	1994年 5月 14日
深浦里	1994年 2月 12日	1994年 4月 14日
發理里	1995年 6月 3日	1995年 6月 10日
松木里	1994年 5月 1日	1994年 12月 9日
梧底里	1995年 3月 5日	1994年 3月 11日
新 里	1995年 3月 5日	1995年 3月 12日
舟旨里	1994年 12月 10日	1995年 1月 24日
道田里	1995年 8月 16日	1995年 9月 17日
고천리	1996年 8月 17日	1997年 5月 10日
상정리	1997年 7月 21日	1998年 6月 23日
동집리	1997年 12月 10日	2000年 6月 25日
적포리	1997年 12月 10日	2000年 6月 25일

## 2. 調査地域의 概況

江原道는 한반도 중부의 동편을 차지하고 있다. 북쪽은 함경남도과 황해도, 서쪽은 경기도, 남쪽은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와 접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태백산맥이 있어 영동과 영서로 구분하고 크고 작은 지맥으로 덮인 산의 고장이다.

太白山은 평균높이 1,000m이며 동해로 치우쳐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강원도의 동서 교통의 큰 장애가 되어 영동과 영서의 역

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문화와 풍속 그리고 기후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 영동 남북간에도 해안쪽으로 뻗어있는 산맥사이의 마을간에도 관습이나 예문이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풍 기후권에 속하여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해양성 기후가 남쪽에서 밀려오며,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기후대가 통과한다.

강원도 지역은 일반적으로 해발이 높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위도에 비해 기온이 낮으며, 영동과 영서지방 간에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겨울이나 여름의 온도도 고장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봄과 겨울에 걸쳐서 내륙과 해안, 산악과 분지의 계절의 기온차가 뚜렷이 나타난다.



그림 1. 지형과 지역



그림 2. 調査地域

따라서 기운의 변동을 알리는 등고선이 복잡하고 강수량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다.

영동지방은 동쪽으로 급하게 떨어지는 태백산악지대로 이루어져 경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예로부터 可居地가 거의 없다고, 擇里志에는 강원도에 농경지가 적고 瘠薄하다는 이유로 강원도에는 살 곳이 못된다고 한다<sup>1)</sup>.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지은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보면 太白山이 慶尙道 방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太白山은 안동도호부 북쪽 120리에 있는데 북쪽으로 영월, 정선, 삼척 땅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안동, 예안, 봉화과 접해있다」<sup>2)</sup>.

위와 같은 글들의 내용으로 보아 太白山은 三陟과 안동에서 각각 120리 거리에 위치하고 두곳의 중심에 자리하여 지역의 상산으로 崇拜되던 곳이며 地域의 완충 지대로 경계가 불분명 할 정도로 서로 왕래가 잦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삼척지방의 민가

#### 3.1 三陟北部 五十川地方의 民家

太白山에서 海岸으로 흐르는 五十川 주변농도

를 利用하며 生活하는 農村마을이 形成되어 있는데, 이곳의 民家들은 대부분 生活형편의 向上과 政府의 住宅改良事業의 일환으로 新築이나 改築을 하여 옛모습의 原形集團農村마을을 찾을 수가 없어 環境의 변화가 住居의 週期轉換을 맞이하였으므로 農耕社會의 住居文化를 豫測하기가 不可能하였다.

그러므로 保存狀態가 良好하고 開發의 유혹이 없는 五十川 上流에 位置한 店里, 發理, 深浦里 上정, 고천리地域을 選定·踏査하여 그곳에서 嶺東地方 固有民家의 전과경로와 分布事項을 알 수가 있었다.

그곳에는 두 가지의 平面類型의 民家が 分布되어 있는데, 하나는 嶺東地方의 구들구성의 田字집과 嶺西地方의 四方집과 유사한 두령집이라는 民家が 아래 [그림 3]과 같이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

이장에서 展開하고 싶은 것은 調査民家의 대부분이 두령집과 구들구성의 田字집이라는 것과 구들구성의 田字집이 嶺東北部地方에 分布된 平面類型이고, 마루 있는 田字집은 踏査와 實測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마루구조와 구들구성의 田字집의 分布限界를 짐작할 수 있었다.

三陟北部의 民家は 구들구성의 田字집은 마을에 따라 特色을 띄는데 몇 가지를 略述하면 江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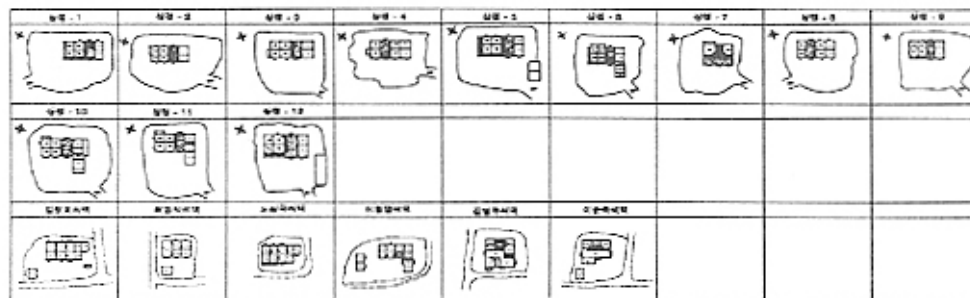


그림 3. 상정·고천리 지방의 민가

地域의 民家は 마루부분이 들출한 7자형의 田字집이 많이 있고 동해 방상지역의 田字집은 10

1) 강원도, (강원총람) 1975. 1. p.31  
2) 삼척군, 삼척군지,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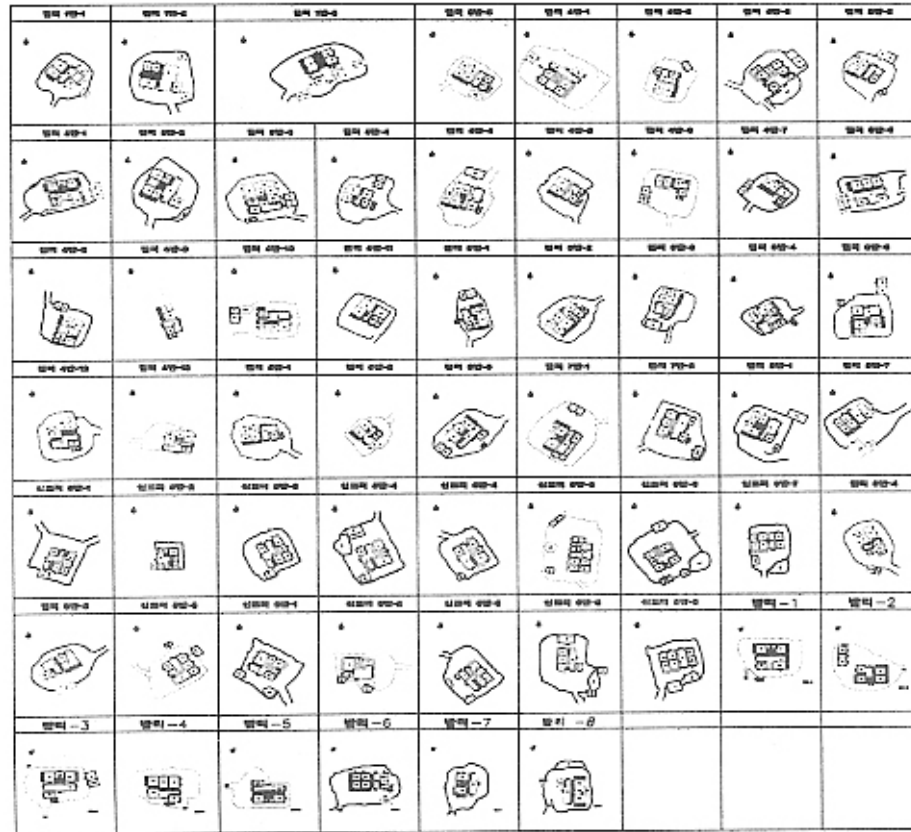


그림 3-1. 전리·심포리·말리지역의 민가

간 整形의 田字집으로 構成되어 地域에 따라 그 樣式이 조금씩 다른 것은 江陵地方엔 匠人의 影響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땅상지역은 農土가 많은 富農이라 부속채도 두었고 就寢部分인 방도 6칸 정도의 大規模로 되었다.

### 3.2 三陟 麻邑川地域의 民家

이 地方은 앞산이 턱을 받치고 뒷산이 머리를 누른다는 鷓鴣산중의 마을로 火田을 하여 雜穀과 粟草을 캐서 生活하는 典型的인 山村마을이다.

舟旨里를 選定한 理由는 三陟地方의 中心地域에 位置하고 또 이 마을에 接近하기 어려워 産業社會의 外來文化가 接近하지 못하고 交通이

不便하여 住宅改良이 行해지지 않았으므로, 民家의 原形이 잘 保存되어 있어, 嶺東地方의 地域에 따른 民家分布와 전과경로를 把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舟旨里 마을에는 각 지역의 固有한 特性을 지닌 民家が 變形되거나 混用되지 않고 原形 그대로 存在하고 있어 學問的 가치가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地域에 따른 自然環境과 民家의 形式變化와, 發展過程을 定立하는 研究에 도움이 될 資料를 發見할 수 있었다.

이곳 마을에서는 세가지의 平面類型의 民家を 發見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位置의 位置의 文化의 緩衝地域으로 구름구성의 田字집인 嶺東北部地

方의 民家와 마루 있는 嶺東南部地方의 民家 그리고 太白山자락의 두령집民家가 共存하고 있는 地域이었다.

이곳의 民家에는 불을 保管하는 화퇴의 痕跡



그림 4. 주지리마을 민가(마음천 지역의 민가)

은 두령집과 마루 있는 田字집에서 發見할 수 있었고, 구들구성의 田字집에는 전혀 화퇴의 유구를 發見할 수 없었다.

이 地域에선 40년 전만 하여도 솜으로 만든 이불이 없어 밤에 잠을 잘 때는 짚으로 만든 자리를 덮고 잤으며 자다가 추우면 다시나가 군불을 지핀 것이 最近의 일이라 본다면 그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구들구성의 전자집 平面의 特性은 취침공간이 田字모양이고 마구와 정지가 聯立하는 것이다.

그런 平面의 모양이나 形式은 一色이며, 방의 크기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가로·세로 9자 内外이며 구조의 한계가 공간을 구속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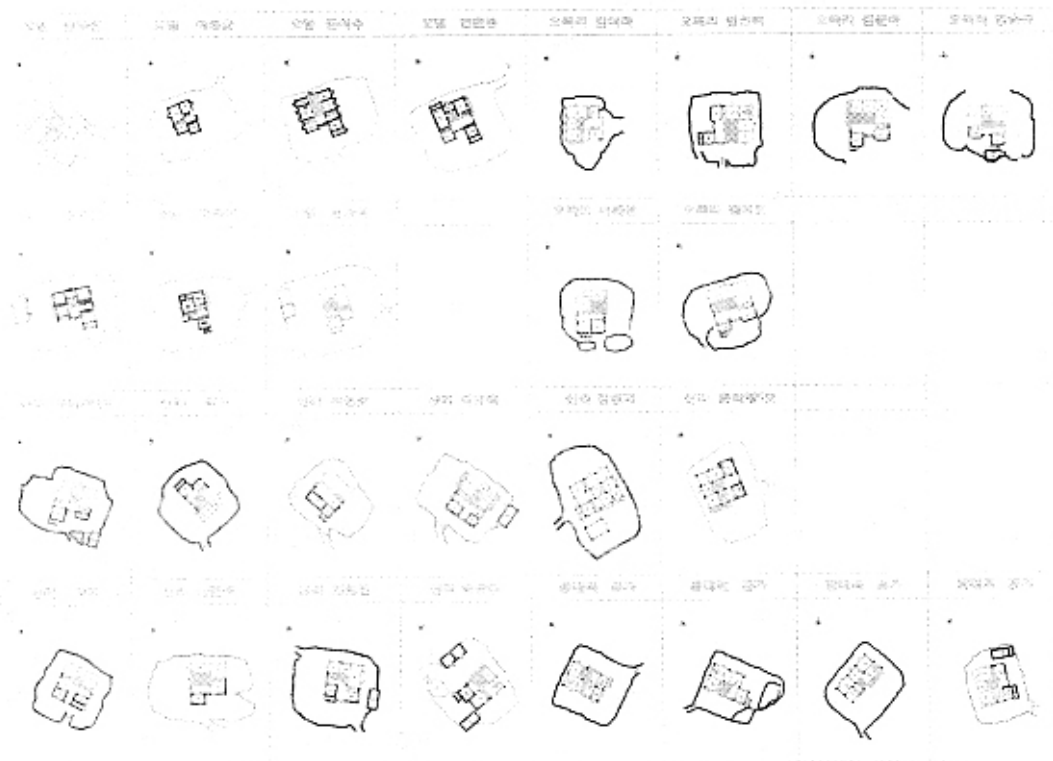


그림 5. 오저·오목·신리지역의 민가 (가곡천 지역의 민가)

3.3 三陟南部 柯谷川地域의 民家

三陟 五十川과 柯谷川 사이에 麻邑川이 있다. 柯谷川의 位置는 三陟地方 최남단 경북 울진 지역과 인접하는 位置이며 五十川의 上流周邊의 民家와는 다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南部地方 마루문화와 隣接한 關係로 그特徵이 마루 있는 田字집과 두렁집형식을 [그림 5]와 같이 답사 체득하여 제시하였다.

이 지역은 옛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된 3개 部落을 集中的으로 調査하여 그 結果를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柯谷川 周邊지역 민가의 類型으로 변형된 民家는 두가지로, 마루가 있는 田字집과 內向的인 두렁집으로 構成되어 있었고 五十川의 上流地域처럼 구들구성의 田字집은 한채도 없다는 것이다.

이 두 類型 모두 南部地方의 마루문화민가의 影響을 받고 있어 그 特性이 잘 나타나 있는데, 두렁 形式의 民家は 民家內部中心部分의 마루가 外部로 까지 發達하여 있는 것은 마루 있는 民家에 接近하는 마루의 媒介部分이 두렁집에서도 발달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마루 있는 整形 田字집의 마루 있는 民家와 부정형의 마루 있는 民家로 區分한다면 부정형의 마루 있는 민가는 가곡·오서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4. 삼척지방 민가의 특징

4.1 一字의 구들구성 田字집

구들구성의 田字집은 주로 三陟地方 북쪽에 分布되어 있으며 就寢空間 部分이 구들로 構成되고 나란히 정지와 봉당 그리고 마구와 庫房이나 방앗간이 있다.

민가는 주로 本채로만 構成되고 分離된 정랑이 있는 境遇와 인접한 형식이 있는데 인접한 정랑형식은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분리된 정랑은 男子가 使用하는 공간이다.

最近에 부속채를 들어 家畜의 먹이나 혹은 倉庫 用途의 空間이 新築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一字의 구들구성 田字집은 山間地域에 分布되어 있으므로 自然地形에 順應하고 汚水의 흐름을 중시한 배지방법을 선택하여 自然과의 調和를 民家 여러 部分에서 發見할 수 있었다.

북부의 구들구성 田字집의 남방한계선이자 남부지역에 마루가 田字집의 북방한계임을 알 수 있다.

-자형 구들구성의 田字집은 保護, 內向的인 住居로 일반적인 주거형식으로 1960년대까지 續조된 형식이다.

住居空間은 안방이 마당쪽 정지에 접한 室이며 뒷방, 옷방, 도장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들구성의 田字집은 별채가 없는 것이 特徵으로 就寢空間과 作業空間이 確然이 分離된다.



그림 6. 구들구성의 田字집 (삼척 오십천주변지역의 민가)

그리고 예전에는 구들구성의 田字집에도 코골과 화티, 무등불이 있었으며 봉당에 가마솔과 마구의 구이와의 機能은 원찰하나 안방의 位置와 정지의 炊事를 위한 솔과의 相關關係에서 圓滿하지 못한 것은 民家平面구성 機能의 優先順位를 마구에 두고 안방과 정지, 아궁이와 마구의 關係가 圓滑치 못함을 인식할 수 있으며, 뒷사랑은 곡물창고의 역할을 하는 도장방이고 뒷방은 子女들이 使用하는 空間이다.

4.2 一字의 마루가 있는 田字집

江陵地方의 구들構成의 田字집이 남쪽으로 과급되고, 남부지방의 마루주거문화가 북상하거나, 아니면 영서지방의 반가내부의 마루형식이 전과되어 서로 절충·혼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은 남부지방의 마루가 북상현상인지 아니면 영서지방의 마루주거문화가 전자집에 도입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오래전부터 三陟에서 영서지방과 남부지방간에는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역사적 기록을 참고할 수 있으나 무엇이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 形式은 一字의 구들構成 田字집 안방部分에 마루가 導入된 形式으로, 嶺南의 山間地域에 오래전에는 다수의 一字 마루 있는 田字집이 分布되어 있으며, 이러한 모양들은 30年前만 해도 三陟地方 五十川과 柯谷川 사이 山間 마을인 近德面 草堂과 금계리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住宅改良으로 말미암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田字집 8칸일 때는 마구와 도장이 인접하고 정지와 봉당, 안방과 마루, 그리고 옷방 등의 空間을 갖는 것이 普遍的이며 정지로부터 一定한 順序로 配列하게 된다. 즉, 집안으로 들어서는 進入部分에 봉당이 位置하게 되고 봉당의 뒷쪽으로 정지와 連結되며 옆으로 마루와 連結되어 각 房으로 進入하게 된다.

마루의 뒷쪽으로는 안방이, 옆으로는 옷방이 位置하게 되는데, 옷방은 주로 長成한 家長夫婦가 生活하고 안방에는 늙은 老母가 寄居하며, 도장에는 딸이나 穀食을 貯藏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田字집 平面形態를 固守하면서 칸수의 增加를 통하여 여러 種類의 空間이 存在하게 되지만 이들의 相對的 位置는 一定한 원칙하에서 決定된다고 한다.

즉, 안방은 반드시 정지와 連結되어야 하고 옷방은 정지나 안방으로부터 隔離되어야 하며, 마

루를 中心으로 모든 방들이 連結될 수 있어야 한다는 原則이 作用하고 가능하면 마루는 주거공간에 인접하며 가마솥과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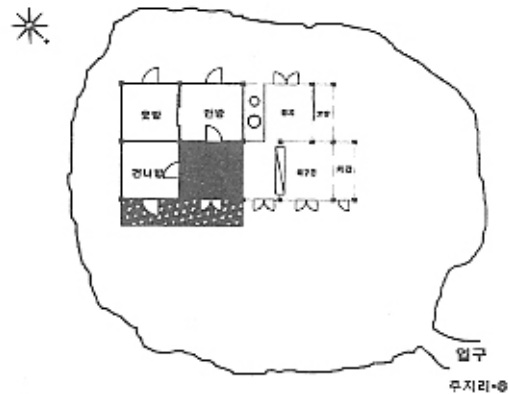


그림 7. 마루가 있는 田字집  
(삼척 마을전주변지역의 민가)

이러한 形態는 南部地方의 마루構造와 北部地方의 구들構造가 折衷하여 나온 形式으로 三陟中部地方에 분포된 形式이고, 三陟 南部地方에는 變形된 마루 있는 田字집이 分布되어 있어 民家의 변화와 進路에 대한 理論定立이 容易하다.

4.3 變形된 마루 있는 田字집

變形된 마루 있는 田字집이 분포된 지역은 삼척남부 가곡천 주변지역 민가로 북쪽으로는 구들구성 田字집의 안방部分에 마루가 導入된 形式이고 남쪽에는 마루 있는 廬집이 分布되어 있다.

이러한 周邊의 다른 民家類型들로부터 각각의 民家特性이 混合 折衷하여 변화된 새로운 住居形態가 創出되었다.

이 形式은 이름과는 相異하게 居住部分의 室들이 田字로 構成되지 않았지만 分類하고 理解하기에 便利하도록 하기 위하여 變形된 田字집으로 이른다.



그림 8. 變形의 마루 있는 田字집  
(삼척 가곡천 주변지역의 민가)

柯谷川 주변의 變形된 마루 있는 田字집은 용마루 軸의 기둥은 直線으로 配列되었으나 용마루 軸 直角方向의 기둥은 室의 크기에 따라 不規則하다.

그것은 定形의 구들構成 田字집이 남쪽의 마루주거문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영서지방 곁집이나 두렁집의 영향인지는 調査와 답습을 통하여 理論定立이 必要한 것으로 思考된다.

調査지역인 柯谷川 周邊의 마을에서 두렁집과 變形된 마루 있는 田字집이 혼재해 있어 民家類型의 漸移된 過程을 地域에 따라 體系의으로 整理가 要求된다.

#### 4.4 두렁집

두렁집의 分布地域은 嶺西 봉화·식포지방과 嶺東의 三陟地方 태백산간인 五土川, 麻邑川, 柯谷川의 上流山間地方에 分布되어 있다.

形成要因은 嶺東과 嶺西의 中間지역인 산간오지에 位置 하므로 도적으로부터 食糧을 保護하고 명수로부터는 家族을 保護하기 위하여 嶺西地方 곁집에서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있는 就寢空間 부분을 도입하고, 慣習이나 生活方式이 같은 嶺東地方의 田字집에서 정지와 마루부분을 結合하여 새로운 住居形式을 創出하였다.



그림 9. 두렁집  
(태백산간지방의 민가)

두렁집의 特性은 내향, 보호적 住居空間形式을 취하고 있으며 嶺西와 嶺東의 서로 다른 住居文化를 혼합 結合한 주거형식이다.

두렁집은 一般的으로 너와집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의 명칭은 두렁집으로 칸수에 따라 아홉칸 두렁집과 여칸 두렁집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는 「둘레, 둘레 돌아가며 주위에 室들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sup>3)</sup>.

#### 4.5 곁집형 民家

곁집은 田字집과 구분되며 집의 사방이 곁으로 둘러졌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봉화지방에서는 四方집이라고도 한다.

곁집은 奉化와 安東의 外廓地域에 多數가 分布되어 있으며 富農의 民家로 形式은 階層住居班家가 集中形式으로 變化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것이 階層住居文化의 隣接地域 住居形式이다.

곁집에는 마루가 住居空間 内部에 있는 形式과 없는 形式이 있다.

마루가 곁집 내부에 있는 형식은 삼척과 인접한 봉화지역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여물을 쌓여서 소에게 먹이기에 편리하나 惡臭등으로 불건

3) 임상규, 太白山間地域 民家の 形成과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1935



하고, 마구가 본채와 분리되는 형식은 안동·봉화지역 반가의 영향으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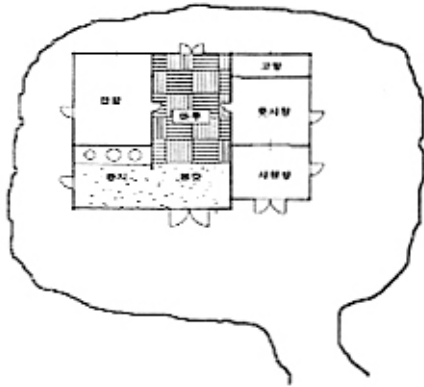


그림 10. 김집형 民家

[그림 10]의 平面形態가 四方各 3間으로 지붕에 까치구멍이라고 부르는 獨特한 構造를 하고 있는 것은 두렁집과 같이 室內部 공기의 흐름을 도우며 빛을 내부로 유입하려는 의도로 인식된다

이 집은 建物 前面의 3間은 정지, 封堂, 사랑방이고 가운데는 안방과 마루·및 사랑으로 되어 있으며, 뒷면은 庫房으로 構成된 봉화 외곽지역에 分布되어 있는 四方집의 典衡인 手法으로 構成된 建物이다.

四方집은 세겹집이라 부르는데, 집이 四方 이대에서 보아도 똑 같다는 意味에서 四方집이라고 하며 房이 3겹으로 되었다고 해서 세겹집이라고도 한다.

이런 집은 奉化지방의 소백산맥 山間地域에 여러채가 分布되어 있을 뿐이며 農家로서는 한 집으로 山間地帶에서는 富農에 속한다.

### 5. 태백의 동점과 봉화의 석포지역 민가

옛날 이마을에 늦점(銅店)이 있으므로, 동점, 또는 동점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土近橋(싸군다리) 즉 작은 다리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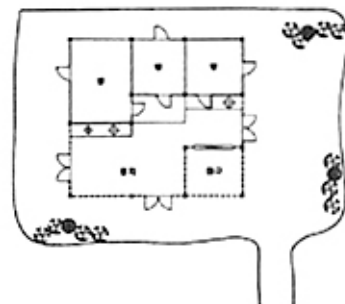
는 마을), 穴內(구무안, 구무소 안쪽에 있는 마을), 물땡잇골(水家村 : 찬물이 많이 난다고 함), 高秀谷, 말바드리(馬坪), 銅店(봉점), 병밀(屏項 : 병고개 밑에 있는 마을), 下万基의 9개 자연부락을 합친 마을이다. 현재는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있다. 현종때 김영 金元龍은 안동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이곳에 와 마을을 개척하고, 또 영월 임종한도 같은 시대에 왔다.

분유 동남부에 위치하여 동은 원덕읍에, 서는 금천리에, 남은 봉화군에, 북은 칠암 및 장성리에 접하여 동서 4km, 남북 8km이다. 산천은 동방에 鎭山(1245m)은 원덕읍과 경계에 있고 서방에 기묘한 문암산은 태백산의 동맥이다. 장성리에서 흘러내리는 大川은 마을 북편을 여러번 휘돌아 천천을 형성하고 석문 밖에서 천암천과 합류하여 봉화군 석포에 들어간다. 穿川(구무소)의 수심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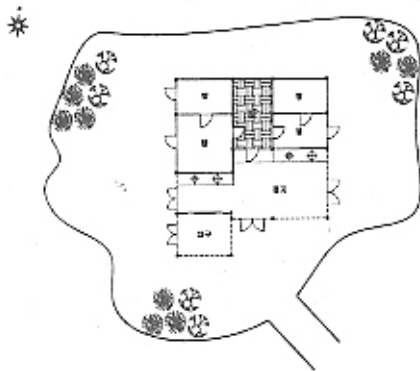
[그림 11]과 같이 동점지역의 민가는 축조된 시기가 200년이 넘는다고 김주인 삼병섬씨의 증언으로 그의 할아버지도 축조 연대를 알 수 없으며 예전에는 호랑이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문에 빈지를 꼰았던 덕이 남아 있다고 한다.

삼병섬씨는 삼척섬씨로서 삼척에서 이주해 왔으며 동점지역의 세가구는 모두 선대께서 세명의 아들에게 살림을 내준 집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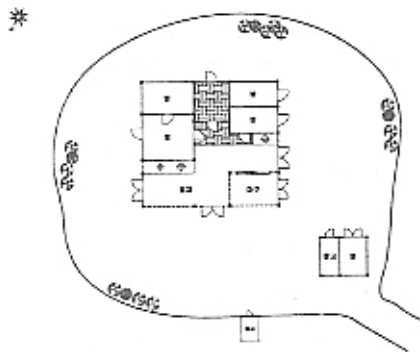
※



동점동 삼병섬 민가



동점동 심재신 민가



동점동 심성운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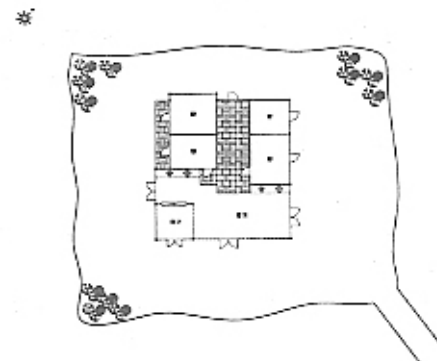
그림 11. 태백시 동점동의 민가

원도의 가곡마을과 천암과는 자주 왕래가 있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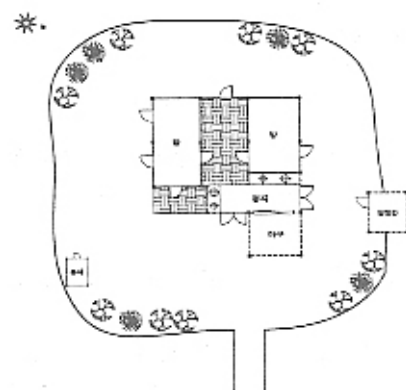
사진답사한 시간이 오래되어 그때에 있던 민가는 없어진 집도 더러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이 두지역 민가의 형식은 삼척의 정리와 심포리, 반리지역의 민가와 같은 유형으로 인식되며 삼척의 전자집과 봉화의 절집이 혼합, 절충형식이다.

석포리의 민가는 네집으로 나래기와 가드레 그리고 육송정이라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 민가들의 형식은 일관성은 없으나 다분히 두형집 모양을 하고 있어 아주 오래 전에는 도계, 동점, 석포가 같은 생활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석포면 이병탁 민가



석포면 김병호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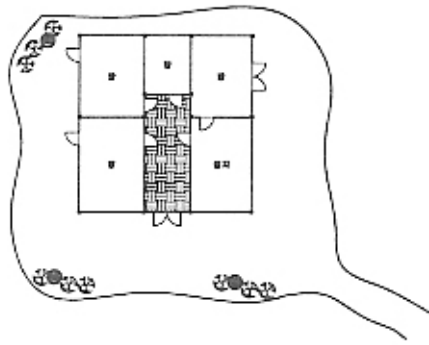
[그림 12]의 석포리 민가는 동점에서 흐르는 낙동강 하천을 따라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석포는 경상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으며 태백시와 삼척의 가곡면과도 경계를 하고 있다

계곡이 깊어 오래된 옛민가 마을을 찾을 수는 없었고 넓은 지역에 최근에 축조한 집들과 점점이 흩어진 오래된 민가 네채를 채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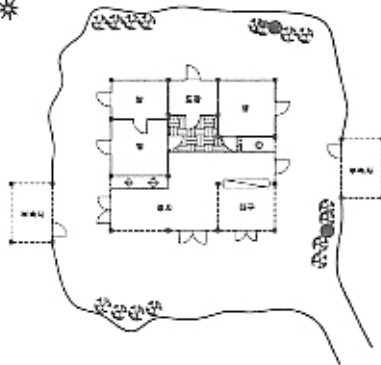
이곳은 강원도와 가깝고 경상도 봉화와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말씨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으며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 강

\*



석포면 김석하 민가

\*



석포면 정연달 민가

그림 12. 봉화군 석포리의 민가

## 6. 結論

韓國民家は 一般的으로 地域別・民家類型別 分類方法으로 定立하고 있다.

江原道 地方은 嶺東地方의 民家와 嶺西地方의 民家가 서로 다르고 三陟을 中心으로 북쪽과 남쪽이 다르다.

그리므로 많은 民俗學者가 民家에 대하여 각자의 視覺에서 理論을 展開하고 또 推定도 많이 하는 地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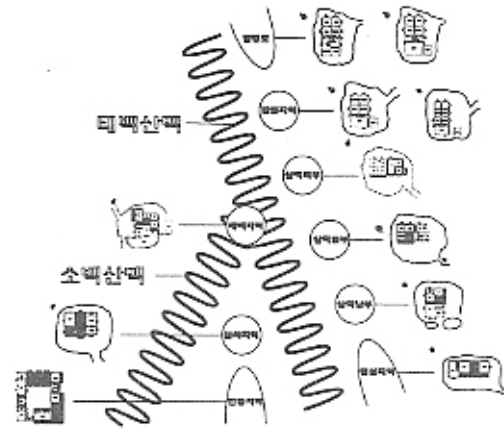


그림 13. 유형별 민가 분포도

本 研究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嶺東地方 남북간으로, 함경도지방에는 정주간이 있는 구들구성의 전자집, 江陵地方에는 마구가 돌출한 구들구성의 田字집이 나타나며, 三陟北部는 一字의 구들구성의 田字집, 三陟中部는 一字의 마루 있는 田字집, 三陟南部는 변형의 마루 있는 田字집이 분포하고, 원성지역은 마루 있는 혼집이 나타난다.

이것으로 嶺東地方 南北의 민가 漸移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三陟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전자집과 중간지역은 두령집 그리고 嶺西地方의 접점에서 반가로 점이 되었다.

5장에서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도 태백시 동점지역의 민가를 답사, 정리하니 태백 동점까지는 삼척의 산간지방 민가 형식인 두령집 민가로 인식되고, 경북 석포지역의 민가는 두령집과 변화된 두령형식의 민가가 나타난다. 앞으로 승부 및 봉화 가까운 지역까지 답사하여 삼척과 봉화간의 민가변화를 밝힘에 의의가 있다.

參 考 文 獻

1. 임상규, 두령집 住居形式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1995, 8
2. 임상규, 三陟地方 民家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1995, 6
3. 임상규, 太白山間地域 民家の 形成과 空間構成  
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1995
4. 三陟郡, 三陟郡誌, 1984
5. 奉化郡, 奉化文化遺跡요람, 1992
6. 太白文化원, 내放鄕太白, 1994
7. 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 산간지방의 가옥과 생  
활, 태웅그래픽, 1994
8. 慶尙北道, 文化財 地表調査報告書,  
每日原色精版社, 1981
9. 金命福, 江原道 南部와 慶北 北部地域의 結집에  
관한 研究, 嶺南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10. 임상규, 嶺東地方 民家の 變化過程에 관한 研究,  
建築學會 論文集, 1997, 3